마을 안녕 기원… 6백년 이어온 전통굿

문서기록 역사 반증
제의 굿청진설도 등
상차림등 일목요연

1960년 제작된 도당굿 축문.

반세기에 걸쳐 내려오는 갈매동 도당굿은 문서로써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규명, 그 의미를 더 한다.

현존하는 갈매동 도당굿 관련 문서는 두 가지다. 1928년에 지은 '무진 삼월 초오일 山致誠節次'와 1960년에 지은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日 致誠 축문기입·젼갈기입 산치성절차'가 바로 그것.

이 제의문서는 32년 차이를 보이며 매년 만들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하다 다시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1928년 문서의 굿청진설도는 제의에 따른 상차림을 일목요연히 담겨 있다. 특히 마을사람들의 상차림을 뜻하는 '대동차지'와 무당이 도당굿을 할 때의 '무당차지'를 철저히 구분했다.

대동차지는 제장상을 비롯 제석상, 말명상, 호구상 등 총 19상을 차리고 떡, 과일, 나물, 증편, 조포, 백미 등을 올렸다.

무당차지는 대신반, 만신상, 전악상을 차리고 만신은 4명이 한상씩 차린 것으로 기록됐다.

여기다 굿거리별 떡쌀차림을 열거했는데 문서에 쓰여진 고어 형태로 보아 1928년 훨씬 이전의 글을 참조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의 제의 문서는 1928년 것과 유사하나 약간 간소화시킨 상차림이다. 이 문서에는 한문과 한글축문이 담겨 있다. 축문에는 12세기(고려 예종)에서 15세기(조선 태종)까지 사용했던 '경기우도'란 단어가 등장, 도당굿의 역사를 반증하며, 지금도 이 축문 원문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와함께 구리시는 1994년과 1996년 학술조사사업을 벌여 갈매동 도당굿 관련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조선 경기
우도 남면 갈매동 거민 삼화주 모씨 등
감소고우
금암산 산신지령복이 위중사악 영진
일방 권이위복
도제중생 유아하민 감불경황 간세용
형 서갈미성 (한글축문 일부)

산신제를 지낸후 집집마다 돌며 복을 기원하는 유가(遊街)행렬.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40〉

제15호 갈매동 도당굿

마을의 평안과 가내 복을 기원하는 굿판은 마을 주민의 작은 축제였다.

집집마다 쌀과 음식을 추렴해 몇일 밤을 지새며 막걸리잔을 돌리고 춤과 노래로 걸판진 놀이판이었다. 이때 지역마다 영험한 터를 골라 당집을 세우고 길흉화복을 주장하는 신을 모셨다.

마을 주위의 산 모습이 칡과 매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칡의 갈(葛)자와 매화의 매(楳)자를 딴 구리시 갈매동. 500~600년의 역사를 지닌 갈매동 도당굿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곳이다.

지난 1995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갈매동 도당굿(보유자 무녀 조순자·악사 허용업)은 짝수해 마다 음력 2월1일 시작해서 음력 3월초 본격적인 행사가 치러진다.

마을굿은 지역에 따라 동제, 산신제, 당산제, 성황제 등으로 불리는데 경기도는 대개 산신제와 도당굿을 겸한다. 유교식 제례인 산신제와 무의식인 도당굿이 결합된 갈매동 도당굿은 전통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부분의 마을이 추수가 끝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가을인 반면 도당굿은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인 봄에 열려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봄맞이 축제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굿당에서 치러지는 열네거리 굿판은 각 거리마다 신을 모시고 달래는 놀음굿으로 만신(무녀)과 마을사람들이 화를 보내고 복을 부르는 믿음을 실은 행사다.

현재 갈매1, 2동에 1천100여호가 살고 있으며 3대째인 가구만 90%가 넘어 옛부터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도당굿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도당굿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주민들이 모여 부정없는 사람을 골라 '도가' 3명을 선출한다. 이들은 당주·숙수와 함께 제의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당주'는 도당굿 전체 살림인 굿터와 제기그릇, 제반서류 등을 관리하며 '숙수'는 산제 지내기 등을 맡는다.

도당보다 산신신앙이 우선인 갈매동 도당굿은 상당이 산신이며, 하당이 도당이다. 대개 음력 3월 초하룻밤 야트막한 구릉지에 산신당을 꾸미고 산치성을 지낸다. 다음날까지 마을을 돌며 복을 기원하는 '유가(遊街)'를 진행하고 3일에는 본격적인 도당굿이 진행된다.

제관들이 산신에게 올리는 산치성에 앞서 예고제, 집고사(가택안방풀이)라고 불리는 부정풀이, 도당에 조포(제주)를 올리는 조포 모시기, 당주댁 안주인이 간단히 비는 안반고사가 진행된다. 이어 서낭신을 맞는 서낭맞이와 무녀, 악사, 제관들 모두 마을을 밤 세워 돌며 가신들을 달래는 재수굿인 유가가 펼쳐진다.

유가에 이어 다음날 아침 굿청에 도착하면 만신의 본격적인 도당굿이 진행된다. 초부정을 시작으로 가망청배, 조상걸이, 산할머니, 별상, 대감놀이, 제석거리, 호구거리, 바라, 계면떡, 구능거리, 걸임, 당굿, 뒷전 등 14거리가 밤이 깊도록 계속되며 무녀는 거리마다 화려한 관복과 군복, 궁중복 등을 갈아입는다.

이처럼 예전에는 2박3일을 놀던 큰 굿이지만 지금은 규모를 줄여 1박2일 동안 열린다. 이때 제의 비용은 집집마다 '고양미'로 불리는 쌀이나 돈을 내어 마련하고 제물은 소머리와 11개의 떡시루, 쌀과 누룩으로 빚은 '조라술', 조포, 계면떡 등을 올린다.

제물 중 특이한 것은 조포와 계면떡. 조포는 손두부로써 굿청에 제일 먼저 올리며 채를 얹어 보관한다. 계면떡은 도당굿 14거리중 열번째인 계면거리에 사용하는 떡으로 어슷어슷하게 썰은 메떡이다. 이 같은 구성과 진행내용은 관련문서로 내려오고 있어 역사적 기원을 정확히 규명하고 있다. 1928년에 지은 '무진 삼월 초오일 山致誠節次'와 1960년에 지은 '檀紀 四二九三年 三月 0日 致誠 축문기입·젼갈기입 산치성절차'로써 제수와 제의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보유자인 무녀 조순자씨(53)는 4대에 걸쳐 100여년 동안 모계로 전해지는 강신계열의 기능세습무다. 조씨의 증조모(성명미상)에 이어 할머니 이천분씨와 친정어머니 최복동씨가 내림을 받았다. 최복동씨의 맏딸 조순이씨가 내림을 받지 않고 둘째인 조순자씨 또한 거부했지만 1995년 어머니 최씨가 위독하자 그 해 6월 조순자씨가 내림을 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잽이 보유자인 허용업씨(58·조순자씨의 형부)는 민속악(피리) 연주자인 부친 허상천씨와 해방전후 민속악 연주의 대가였던 백부 허상복씨 등 전통 민속연주자 집안에서 성장했다.

허씨는 이충선씨에게 삼현악곡의 기본곡과 무악전반을 배웠으며, 피리 명인 강학수씨, 염불타령의 겹퉈김 주법을 이일선씨에게 사사해 당대 명인들의 주법을 섭렵했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

구리시 갈매동 住民 2년마다 축제 열어 …
산신제·도당굿 겸해…이틀간 걸판진 굿판
4代 기능세습무 조순자·잽이 허용업씨 계승